

한우

“미국산 쇠고기 소비 줄일 터” 80.7% 한우자조금 의뢰 퀄리티 긴급 여론조사 결과

미국내 BSE 발생에 따른 국내 소비자들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인식이 지난 03년 BSE 발생시보다 더욱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사무국이 미국산 소 BSE 발생에 대한 긴급 소비자 반응 조사를 위해 한국 퀄리티에 의뢰해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긴급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80.7%가 미국산 쇠고기 소비를 줄이겠다고 답했다. 이는 2003년 미국 워싱턴주에서 BSE 발생 소식이 전해진 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67.6%가 미국산 쇠고기 소비를 줄이겠다는 응답에서 13%나 증가한 것이다.

이번 미국산 쇠고기 대신 소비를 늘릴 의향이 있는 고기를 묻는 질문에 돼지고기 소비를 늘리겠다는 응답이 50.5%로 가장 높았으며 한우고기를 늘리겠다는 응답은 50.4%로 바짝 뒤를 이었다.

닭고기와 국내산 육우고기를 늘리겠다는 응답은 각각 32.3%, 20.6%에 달했으며 호주산 쇠고기 소비를 늘리겠다는 응답은 14.2%로 집계됐다.

이는 생선 소비를 늘리겠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던 2003년 조사결과와 큰 차이를 보였다.

BSE 발생 보도 이후 쇠고기 소비가 꺼려지는 정도에서는 72.2%가 그렇다고 응답했고, 꺼려지

지 않는다는 응답은 21.9%에 그쳤다. 쇠고기 소비를 줄이는 이유에 대해서는 BSE 발생으로 쇠고기 전체에 불신이 생겨서라는 응답이 31.4%로 가장 높았고, 원산지를 속여서 판매할지도 모르는 불안감 때문이라는 응답도 25.8%에 달했다. 또 쇠고기 안전성에 대한 의심과 정부의 쇠고기 검역시스템에 대한 불신이라는 응답도 각각 21.3%, 19.4%로 집계됐다.

미국내 BSE 발생으로 전체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한우고기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은 더욱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 한우가 BSE에 안전하다는 사실을 아느냐는 질문에 61%가 알고있다고 응답해 03년 농경연 조사에서 54%가 한우고기 안전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보다 7%p 높게 나타났다.

축산경제신문 옥미영 기자, omy@chukkyung.co.kr

양돈

돼지고기 구매액 ‘늘고’ 구매량 ‘감소’

지난해 돼지고기시장은 가격 상승으로 전체 구매액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구매물량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영철 (주)팜스코 신선식품사업본부장은 지난 5월 16일 충남 조치원 소재 흥익대 국제연수원에

서 열린 '제14회 신기술양돈워크숍'에서 돼지고기 소비자 구매행동 트렌드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돼지고기 신선육 전 체시장은 구매액 기준으로 전년보다 5.2% 늘어난 총 7조4119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구매량 기준으로는 총 49만608톤으로 전년보다 6.9% 감소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유 본부장은 “지난해 큰 폭의 가격 상승으로 금액적으로는 시장규모가 유지됐지만 구제역의 영향으로 국내산 돼지고기의 소비가 감소한데다 수입 돼지고기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구매물량이 줄었다”고 밝혔다.

특히 돼지고기의 가격 이외에 소비자의 구매 횟수가 줄어든 것도 구매물량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최근 2년간의 구매횟수는 12.84회로 10.1%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으며, 그 요인으로 가격 변화 이외에 다른 신선육이나 캔햄, 참치캔 등 다양한 가공식품으로 대체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유 본부장은 “국내산 돼지고기 구매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시장을 이탈하거나 진입하는 구매자들과 대비해 높은 수준의 구매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국내산 돼지고기의 회복세가 지속되고 돈가가 안정되면 그동안 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내산 돼지고기의 소비측면(구매빈도) 감소는 둔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농수축산신문 홍정민 기자(smart73@afnews.co.kr)



“닭고기 유통업소 위생 점검 강화” 토종닭협회, 관계기관 · 지자체에 요망

한국토종닭협회(회장 김연수)가 정부기관 및 지자체, 회원사에 닭고기 포장처리 및 판매업소 위생 점검 강화를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경기지역 식육판매업소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반쯤된 닭고기를 재포장 한 후 유통기한을 연장 표시해 불법유통 한 사례가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닭고기의 소비자 신뢰 실추가 염려됨에 따른 것.

이와 관련 토종닭협회 관계자는 “이른 더위로 성수기를 맞은 닭고기에 대한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한 소비자 신뢰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라며 “관계기관의 단속 강화는 물론 관련 회원들의 철저한 작업장 위생관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토종닭협회는 불법유통 적발사례 해당 지자체인 경기도에 언론 보도된 업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위반사항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 및 각 시도에 이 같은 닭고기 불법유통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닭고기(생닭 등) 유통 판매 업소에 대해 위생 점검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토종닭협회는 특히 축산물 위생 사법경찰관리제 시행에 따라 신규 지명된 사법 경찰관을 활용해

유통기한 위반조 등 축산물 불법유통 단속활동을 적극 전개해 줄 것으로 통보했다. 토종닭협회는 특히 주요 점검내용으로 미신고 영업행위, 작업장 위생실태, 반품된 처리방법, 포장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허위표시,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판매 여부 및 유통기한 위반조 여부 등을 밝히면서 철저한 점검을 당부했다.

축산경제신문 박정완 기자 wan@chukkyung.co.kr

낙 농

‘캡틴 박’ 우유홍보 위해 뿔다 낙농자조금, 박지성 선수 홍보대사 위촉



영국 맨체스터유나이티드의 ‘캡틴 박’ 박지성 선수가 우유 홍보대사에 선정돼 국내산 흰 우유 홍보에 나선다.

낙농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승호)는 지난 5월 22일 서울 방배동 주민센터에서 2012년도 제

2차 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TV광고 계획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TV홍보 대행사인 제일기획은 축구선수 박지성을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TV광고를 제작해 우유홍보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낙농자조금은 오는 6월 7일 박지성 선수의 우유 홍보대사 위촉식을 가질 예정이다.

낙농자조금은 몸도 마음도 건강한 청년이란 이미지로 박지성을 내세워 세계적인 수준의 실력과 철저한 자기관리로 세계 최고 수준의 축구선수가 됐지만 언제나 겸손하고 순수한 이미지를 갖고 있다며 이는 국내 흰 우유와 닮았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또 올해는 런던올림픽이 예정돼 있어 전국민의 관심이 올림픽으로 쏠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올림픽 기간인 7월과 8월 집중적으로 TV광고를 실시키로 했다.

박지성 선수는 2002년 한일월드컵 당시 대표팀의 일원으로 한국축구를 4강에 올려놓았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국가대표를 은퇴하기 전까지 국가대표 주장으로 활동하며 전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세계 최고수준의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하면서 한국축구의 위상을 높여 나가고 있다.

축산신문 이희영기자



한국양봉협회, '허니허니 데이' 행사 개최

한국양봉협회는 5월 21일 부부의 날을 맞아 서울시청 일대에서 '허니허니 데이' 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벌꿀 등 양봉산물을 선물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양봉산물의 소비를 촉진하는 한편 도시민에게 생소한 꿀벌의 공익적 가치와 우수한 양봉산물을 홍보해 양봉산업의 환경학적 가치를 홍보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날 서울시청 앞 광장(서편광장)에서는 각종 양봉산물을 홍보하는 전시관 및 벌꿀비누와 밀납초 만들 수 있는 체험관, 시원한 꿀차와 꿀떡을 시음·시식할 수 있는 시식관 등 부스가 차려졌다. 또한 서울시청과 청계정 일대를 오가는 피켓 거리홍보 등도 진행됐다.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kosj@agrinet.co.kr)



“사슴고기 생산기술 보급...농가 소득 제고” 농진청, 녹용생산 획일화 탈피... 육용 개발 팔 걸어

농촌진흥청(청장 박현출)은 사슴뿔을 자른 후 녹용생산량이 적은 사슴은 바로 도태하기 보다는 비육해 사슴고기 생산에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을

활용하면 농가 소득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사슴사육의 주목적이 녹용생산에만 치우쳐 사슴고기의 생산에는 농가들이 별로 관심이 없다. 그러나 세계 제1의 양륙 국가인 뉴질랜드는 양륙산업 총생산액의 80 % 이상을 사슴고기 생산에서 얻고 있다.

사슴고기는 다른 육류에 비해 지방의 함량이 낮고 콜레스테롤 함량이 적어 외국에서는 다이어트 식품으로 비싸게 팔리고 있다.

숫사슴은 녹용성장기부터 사료의 급여량을 늘려 급여하면 녹용의 생산량을 증대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절각 후에도 발정기 전까지는 농후사료(CP 20 %, TDN 70 %)의 급여량을 체중비 1.8 % 이상 급여하면 엘크사슴의 경우 일당증체량이 1.1kg 정도 된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올해부터 3년동안 사슴고기 연구를 시작해 녹용과 녹증탕의 획일화된 판매형태서 벗어나 사슴고기를 통한 양륙산업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상우 가축유전자원시험장 박사는 “국내 양륙업은 녹용과 녹증탕의 판매 비중이 너무 높고 대외적인 영향에 민감하게 반응하다보니 소비자 저변확대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사슴고기 연구를 통한 새로운 소득 창출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금호기자 2012.04.30 15:11:02